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도지사 후보들 “전북 미래 결정짓는 전환점”

민주 중앙당서 본경선 합동연설회

안호영, “지방주도성장 흐름 속 지금이 골든타임”
이원택, “도민 중심 내발적 성장 전략 전환”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경선 합동연설회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현재, 도지사 경선은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안호영 후보는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반도체·에너지·AI 중심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원택 후보는 도민 중심의 내발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 후보는 연설 서두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힘은 전북 도민”이라며 동화농민운동의 정신을 언급, 도민들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기회 부족이 겹친 ‘삼중 위기 상황’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 흐름 속에서 지금이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전북 실현이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분산시켜 새만금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두 번째 전략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구조 전환이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농생명 산업 등과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또한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을 통해 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북 단일 경제권 형성이다. 안 후보는 새만금에서 군산·익산·전주·남원을 연결하는 GTX급 광역철도 JBX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RT와 DRT를 결합한 교통체계를 도입해 “집 앞에서 출발해 전북 어디든 30분 내 이동 가능한 통합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전략은 AI 기반 공공의료와 산업 육성이다. 안 후보는 남원에 KAIST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조성해 의료 서비스와 연구 창업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기본소득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적립해 최소 1,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반드시 전북을 대도약의 길로 이끌겠다”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두번째로 연설에 나선 이원택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 의존형 발전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도민 중심의 내발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북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그는 “전북 인구는 한때 252만 명에서 180만 명 아래로 감소했고,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수도권과 영남, 호남 내부 경쟁 속에서 전북은 삼중의 소외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전북은 외부 기업 유치와 투자에 의존하는 발전 전략을 반복해왔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했다”며 “이제는 지역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을 ‘체감’으로 규정했다. 그는 “도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도민의 주머니에 직접 도움이 되는 체감형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창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수준의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도시 전복을 만들겠다”며 “에너지가 곧 소득이 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도내 기업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외부 기업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출 1,000억원 규모의 전북형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물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인 안호영(사진 왼쪽) 의원과 이원택(사진 오른쪽)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있다.

센터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유통망 구축으로 농촌과 골목상권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북을 국제 에너지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204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 분야로 AI, K-컬처, K-푸드, 그린수소, 농생명 바이오 등을 제시하며 “전북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도정 전반을 공개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공유하는 참여형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북, 체감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외부 기업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출 1,000억원 규모의 전북형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물류

/01만호 기자

하나금융, 전북에 온다

전북혁신도시, 자본시장 전략 중심지 선정

하나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전략 중심지로 선정하고 자본시장 특화 기능이 집적된 통합 금융거점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하나금융의 자산운용·증권·수탁·가맹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현장에 집적하고, 국민연금기금 연계 비즈니스와 지역 밀착 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50여명 규모의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단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 증권, 은행(수탁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하나금융 자본시장 원루프(One-Roof) 센터’를 신설한다. 현재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전북혁신도시로 집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나손해보험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호남권 콜센터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하나금융은 지역 인재 채용을 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

출에도 힘을 기울인다.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관련 기능과 영업 기반을 지속 확대해 전북 전주를 국 민연금기금 연계 금융의 실질적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창년 일자리 지원·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플랫폼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의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을 통해 전북 지역 내 유망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가 멘토링,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와의 협업, 직 간접 투자 연계 등에 나선다.

하나금융이 운영 중인 대표 사회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를 기반으로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등 전북 소재 주요 대학과 연계한 실천형 창업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도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뉴스

자원안보위기 ‘경제’ 도, 승용차 2부제 시행

오늘부터... 방문 민원인 차량 대상 5부제 적용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원안보위기 경제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를 위해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연구 및 조사사업 성과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보(제34권)’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 분야에서는 전북지역 실사한자 유래 살모넬라균의 항생제 내성 및 유전형 분석, 야생 설치류 감염병 병원체 보유 실태 메타지노믹스 연구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민강강 주요 하천 난분해성 유기물질 분포 특성 연구 등 연구 성과가 수록됐다.

연구원보는 총 150부가 제작돼 도내 지자체와 유관기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01만호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아이 키우기 좋은 남원 / 삶의 기준을 높여주는 복지 남원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남원

제9대 남원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